

케이(K)-뷰티,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로 앞서간다!

- 특허청, 화장품 분야 특허출원 1위 기업인 (주)코스맥스 방문, 현장소통 나서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11. 26.(화) 13시 뷰티 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장품 분야 국내특허 출원량 1위인 (주)코스맥스(경기도 성남시)를 방문해 공동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우리나라의 화장품 수출액이 세계 4위('23년 기준)를 기록한 가운데 최근 색조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는 등 급변하는 뷰티 산업의 트렌드를 확인하고, 케이(K)-뷰티 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공동 토론회(세미나)에서는 화장품 소재 분야 특허 동향과 각 소재의 적용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고, 케이(K)-뷰티 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심사 지원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허청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세계 뷰티 산업의 변화 추세에 맞춘 심사정책을 수립하고 화장품 분야 심사기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허청 좌승관 화학생명심사국장 직무대리는 “우리나라는 세계 4위 화장품 수출 국가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은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산업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 화장품 기업들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국내 화장품 분야 특허 동향 및 주요국 화장품 수출 규모

담당 부서	화학생명심사국 유기화학심사과	책임자	과 장	좌승관 (042-481-5534)
		담당자	사무관	문영준 (042-481-5487)

< 화장품 분야 특허출원 동향 >

(단위 : 건)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19~'23년 누계
내국인 출원 (비율, %)	1,912 (83.6)	1,785 (85.0)	1,858 (84.4)	1,857 (85.9)	1,864 (85.9)	9,276 (84.9)
외국인 출원 (비율, %)	376 (16.4)	316 (15.0)	344 (15.6)	304 (14.1)	305 (14.1)	1,645 (15.1)
출원 합계	2,288	2,101	2,202	2,161	2,169	10,921

< 주요국 화장품 수출액 비교 >

(단위 : 천 달러, %)

순위	국가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년 대비 증감률(%)
1	프랑스	17,124,931	14,812,676	17,852,856	19,441,924	21,889,550	12.6
2	미국	10,360,452	8,811,596	9,572,697	10,376,418	11,079,054	6.8
3	독일	8,373,043	6,947,032	8,060,774	8,734,835	9,753,569	11.7
4	한국	6,524,789	7,572,097	9,183,570	7,953,197	8,462,378	6.4
5	이탈리아	5,235,703	4,456,787	5,299,722	5,941,181	7,358,401	23.9
6	스페인	4,564,291	3,729,283	4,716,478	5,310,280	6,678,401	25.8
7	중국	4,628,446	3,943,135	4,829,996	6,023,285	6,240,859	3.6
8	일본	5,327,529	6,193,354	7,470,012	5,824,563	4,382,897	-24.8

* 전년대비 증감률은 2022년 대비 2023년의 수출액 증감률

** 출처: 한국무역협회(K-STAT), 식품의약품안전처